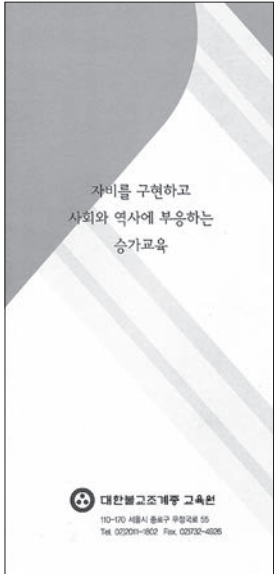


승가, 현대사회문제에 응답하라

■ 6대 교육원 평가와 과제

① 승가교육개혁의 배경



‘자비를 구현하고 사회와 역사에 부응하는 승가교육’ 6대 교육원의 승가교육 모토가 적힌 리플렛 뒷면.

2009년 11월 시작한 6대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스님)은 종단의 기존 승가교육을 전면적으로 개편했다. 행자, 기본교육의 체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한편 전문, 특수교육, 연수교육 등 재교육제도를 정착시켰다. 출범 5주년을 앞두고 본지는 6대 교육원이 그간 추진해온 중·단승가교육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분야별로 살펴봤다.

6대 교육원은 출범 후 한 달 만에 ‘승가교육 발전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자비를 구현하고 사회와 역사에 부응하는 승가교육’의 내용은 획기적이었다. 기존 승가교육의 틀을 과감하게 허물고, 새로운 제도로 개편한 것이다. 행자-기본-전문-특수-연수교육 체계를 마련하고, 교육내용도 전면 개정했다. 교육원이

현대사회서 불교역할 확대
승단 교학연한 수행 외에
부처님 가르침 현대화하고
사회문제 해결제시 요구돼

과거 교육제도 한계 극복
교육개혁 선택 아닌 필수

개혁에 가까운 승가교육제도 변화를 주도한 이유는 현대사회에서 불교의 역할을 책임질 승가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의지에서였다.

불교의 시대적 역할은 시기마다 다르다. 원효스님은 <발심수행장>에서 “배고프면 나무 과실을 먹어서 그 주린 창자를 위로하고 목이 마르면 흘러가는 물을 마셔 그 갈증

을 달랠지니라. 접하는 무물이 얼음처럼 차더라도 불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으며 주린 창자가 끊어질 것 같더라도 먹을 것을 구하는 생각을 내지 말지니라”고 말했다. 그러나 1400년 전 수행자상을 현대사회에 그대로 적용시킬 수 없다. 부처님 재세시인 2600년 전과 불교가 우리나라에 전래된 1700년 전, 여러 사상과 종교가 선의 경쟁을 벌이고 있는 현대사회가 다르기 때문이다. 대중들은 깨달음을 넘어 그 이상을 불교계에 요구하고 있다. 부처님이 역설한 이고득락은 개인의 삶과 사회의 불행을 줄이고 행복을 증진하는 것으로, 오늘날 사회가 원하는 불교의 모습이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불교의 역할은 점차 확대됐다. 불교에 대한 대중의 기대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오늘날엔 수행 외에도 삶과 사회를 진단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불교가 나설 것을 요구한다. 불교계는 시대와 사회의 요구와 질문에 답을 줘야 할 시기에 직면해 있다. 경제학자나 법학자, 기독교인이 각자의 견해로 세상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밝히듯 불교만의 해답을 제시해야만 한다. 불교의 시각에서 고(苦)의 원인은 무엇이고 갈등을 해결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불교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줄 때다. 그 역할의 중심에는 스님들이 서 있다. 스님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는 곧 새로운 승가상을 설정하는 것과 직결된다.

스님들은 불교교학을 공부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부처님 가르침을 어떻게 현대화하고, 사회문제에 적용시켜 해법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문제는 이전의 승가교육방식을 고수해서는 이런 요구를 따라가기 어렵다는 점이다. 율령에 치중된 행자생활, 서당식 교육으로 진행되는 기본교육, 구족제 수지 이후에는 전무했던 재교육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다. 스님들이 현대사회의 요구에 응답하려면 체계적인 교육이 뒷

받침돼야 한다. 불교학 외에도 사회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인문학적 소양도 쌓아야 한다. 새로운 교육제도는 이 모든 것을 담고 있다. 2단계였던 행자교육은 일상-입문-본사-수계교육 등으로 구분돼 시행됐다. 가장 많은 변화를 겪은 기본교육기관은 교재를 한글화하고 표준교육과정을 도입했다. 전문교육기관과 특수교육기관은 강화됐고, 연수교육은 다양해졌다. 승가고시도 해를 거듭할수록 진화하고 있다. 승가교육과 고시를 관통하는 핵심은 불교의 사회적 역할 확대임을 부인할 수 없다. 교육개혁을 이끌어온 교육원장 현응스님은 현행 승가교육체계에 대해 “이 시대에 적합한 불교관과 승가상을 토대로 교육관을 새롭게 설립하고 그에 입각해 승가교육의 틀을 세운 것”이라며 “불교의 전승과 응용이란 두 가지 측면에서 교육개혁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여현경 기자 eonaldo@ibulgyo.com

수화 통역 없는 장애인 초청행사



염태규 기자의
현장에서
che11@ibulgyo.com

“장애인을 초청한 자리임에도 행사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무대에 수화통역을 세우지 않은 것은 물론 청각 장애인들이 보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없었다. 무차대회를 통해 가난한 이, 장애인, 쪽방주민, 빈곤어르신, 거리노숙자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려는 불교계의 노력이 보인다. 문제는 이런 취지의 무차대회에서 차별의 감정을 가졌던 청각장애인이 있었다는 것이다.”

조계종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와 빈곤사회연대 주최로 지난 9월17일 조계사에서 열린 2014년 시민초청 무차대회에 대한 한 장애인 단체의 평가다. 장애인정보문화누리는 무차대회와 관련한 논평을 발표하고 수화통역이 없어 무차대회에 참석했던 한 청각장애인이 차별을 느꼈다고 밝혔다. 더불어 장애인정보문화누리는 불기 2558년 조계사에서 봉행된 부처님오신날 법요식 수화통역과 장애인들을 위한 불교계 편의시설에 대한 아쉬움도 지적했다.

그동안 불교계는 이웃종교에 비해 장애인과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상대적으로 미약했다. 대형 사찰이나 도심포교당을 제외하고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산사를 찾는 일이 사실상 힘든 실정이다. 장애인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편의시설을 갖춘 사찰이라고 하더라도 불편한 경우가 많다. 시·청각 장애인 불자들을 위한 법회나 신행지원은 부족하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을 바라보는 불자들의 인식도 변해야 한다.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든 모두 공업종생이자 불성을 가진 부처님 제자들이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왜곡된 시선은 존재한다. 불자들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장애인들을 시혜 대상으로 바라보거나 그들을 위한 행사나 지원도 사찰이나 행사 주최 측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

장애인정보문화누리의 지적 역시 같은 맥락이었다. 빈곤으로 기본적인 생존을 위협받고 가난에 지친 이들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에서조차 장애인들이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주최 측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했다. 이번 무차대회가 장애인들을 대하는 불교계의 인식에 대해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지난 9월25일 백마건설이 아프리카 학교 건립 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왼쪽부터 사서실장 심경스님, 불교중앙박물관장 화법스님, 총무원장 자승스님, 이강진 백마건설 회장.

축의금 아프리카 학교기금 보시

이강진 백마건설 회장
1000만원 아름다운동행

불자 기업인이 자녀 축의금 가운데 일부를 아프리카 탄자니아 학교 건립 기금으로 기부해 잔잔한 감동을 전하고 있다.

이강진 백마건설 회장은 지난 9월 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을 방문해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동행에 1000만원을 전달했다. 이강진 회장은 불교중앙박물관장 화

법스님과 인연으로 아름다운동행이 추진하고 있는 아프리카 학교 건립 기금을 전달하게 됐다. 전달식에서 이강진 회장은 “자녀 결혼식 때 많은 스님들께서 축의금을 보내 주셨다. 스님들께서 주신 축의금을 모아 아프리카 학교 건립 기금으로 전달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불교와의 인연이 깊으신 것 같다”며 108염주를 선물한 뒤, “모아주신 기금은 아프리카 학교 건립에 유용하게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염태규 기자

조계종복지재단, 몽골 마을공동체센터 건립

수도에서 9시간 걸리는
낙후지역 우브르항가이
주민자활 지원 첫 시설



몽골 우브르항가이 마을 공동체센터 준공식. 현지 NGO 단체인 CHRDR과 함께 진행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스님)은 지난 9월16일 몽골 중부지역 우브르항가이 아이막 지역에서 몽골 현지 NGO 단체인 CHRDR(Center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와 함께 공동체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 우브르항가이는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자동차로 9시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마을. 청기스칸이 수도로 삼았던 카라코룸과 몽골 불교계 스승인 자나비자로 스님이 활동했던 툽툽 사원이 위치한 곳이다.

이번에 준공한 공동체센터는 마을회관과 공동작업장으로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한국의 두레 형태를 띤 주민자조그룹을 형성하고, 마을 소득증대를 위한 공동사업을

개발하게 된다. 향후 공동체센터를 중심으로 CHRDR가 주도해 200여명의 자조그룹 구성원과 다양한 연대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준공식에는 몽골 프로젝트매니저 김유빈 씨가 조계종 복지재단을 대표해 참석했다.

우브르항가이 도청 행정담당관 바타르(Batar)씨는 “마을 주민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우리 지역 최초의 공동체센터가 건립되

었다. 이를 위해 도움을 주신 한국의 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보경스님은 “지난 70년간 소련이 지배한 사회주의 시대 동안 몽골에서 종교활동이 금지되면서 700여 사찰이 파괴되고 스님들이 학살당하거나 강제노동소에 끌려가는 등 참혹한 탄압의 역사를 가

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몽골 대다수의 인구가 불교를 신봉하여 아직도 전통천막인 ‘게르(Ger)’안에 부처님을 모시고 신행생활을 하고 있는 등 오랜 불교문화를 가진 나라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몽골에서의 사회복지사업을 확대함으로써 불교의 사회적 역할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지난 2008년부터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시 외곽의 빈민촌인 바얀주르구 24동에 다목적복지시설 ‘드림센터(Dreamnter)’를 건립, 저소득층 아동과 청소년 대상 방과후 공부방, 도서관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왔다. 지난 2월부터는 몽골 현지 NGO인 CHRDR과 협력하여 울란바토르시 빈민촌에서의 주민저소득 그룹 구축을 통한 자활사업과 우브르항가이에서의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펼쳐고 있다.

안직수 기자 jsahn@ibulgyo.com

담 화 문

제16대 중앙종회의원 및 제6대 교구종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존경하는 종도 여러분!
다가오는 10월 16일은 제16대 중앙종회의원 및 제6대 교구종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일입니다.

중앙종회와 교구종회는 교구와 종단 발전을 위해 종도들의 의견을 대의(代議)하는 입법기구(立法機構)입니다. 아울러 중앙종회의원과 교구종회의원은 집행부의 중무집행에 대해 견제한 비판과 견제를 통해 교구와 종단 나아가 한국불교 발전을 위한 방향과 제도의 틀을 만들어 나가는 막중한 사명감을 지녀야 합니다.

금번 선거에는 이러한 사명감과 종단 발전에 탁월한 식견과 전문성을 지닌 많은 스님들이 후보로 등록하셨습니다. 후보로 나오신 스님들께서는 금번 선거가 공명하고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중헌중법을 준수하여 선거에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선거인단 스님들께서는 어느 후보가 교구와 종단의 미래를 위해 적합한 분인지 밝은 마음으로 선택해주시기를 바라며 후보자들과 함께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번 선거부터 시행되는 ‘투표구신형’ 및 선거권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살피셔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데 미비함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각 교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금번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존경하는 종도 여러분!
종단의 각 선거가 있을때 마다 금권, 비방 등 왜곡된 선거문화에 대한 반성과 자정의 소리가 높았지만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선거제도가 승가공동체의 전통에 적합한 한가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개개인의 의식변화를 추구하고 중헌중법 준수의 원칙을 지키며 선거에 임한다면 미비한 제도를 극복하고 승가공동체의 전통을 계승하는 새로운 선거문화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금번 제16대 중앙종회의원 선거 및 제6대 교구종회의원 선거가 종단 발전을 위해 승가공동체가 화합하고 소통하는 선거, 갈등과 반목을 치유하는 공명하고 청정한 선거가 되기를 부처님께 기원하며 공정한 선거관리의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종도여러분께서도 종단의 선거문화가 개선되어 대중공의를 살릴 수 있는 청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정진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불기2558(2014)년 10월 1일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범 여